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 의** : 미래전략연구부 이지훈 부연구위원
(063-280-7146, 010-7167-2132)
▪ **담당실장**: 연구실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17년 8월 23일(수) 12시부터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상용차 우선 조성

전북연구원 : 개방형 시험장, 관제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운행도로 등 제안

-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조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가운데 자율주행 시장을 이끌 상용차에 대한 실증 인프라 조성이 전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정책브리프 ‘상용차 생산 1번지 전라북도, 상용차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과제’를 통해 해외 상용차 자율주행 동향과 전북의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개방형 시험장 및 관제·데이터센터 조성, 자율주행 고속도로 및 국도 지정 등을 제안했다.
-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전북이 자율주행 실증에 있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상용차산업 여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 속에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승용차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이벤트가 집중되어 중대형

상용차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 투자는 미진한 실정이다.

- 이지훈(미래전략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사회적으로 대형사고 방지, 물류업체의 원가절감 수요, 고속도로 위주 운행으로 사업화 용이성 측면에서 시장 형성이 상용차가 승용차보다 빠를 것이기 때문에 상용차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로 제시된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이 상용차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 새만금 수변·간선도로를 활용하여 상용차에 특화된 개방형 시험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취득하는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제·데이터센터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 특히 새만금 도로에 일부 장치가 설치될 경우 국내 실도로 기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갖추어 트럭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묶어 주행하는 군집주행(Platooning) 실증과 각종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전북연구원은 또한 도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상용차 특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권을 현재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